美 록히드-마틴 마리에타社 합병

미국내 2,3위 방위산업체인 록히드社와 마틴 마리에타社가 지난 8월에 1백억불 상당의 주식 교환을 통한 두기업의 합병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냉전종식과 함께 국방예산의 감소로 美 방위산업이 급속도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병은 90년대에 들어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거대 방산업체들이 합병과 인수, 공동개발로 생존을 모색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록히드 마틴社로 명명된 새회사는 국방, 우주, 에너지분야에서 연간 2백 30억불의 수익과 17만명을 고용하게 된다. 합병이 완결되면 이제까지 최대 방산업체인 맥도널 더글라스社의 위치를 빼앗게 될 것으로 보인다. 93년도 美국방부 군장비 공급순위는 맥도널 더글라스社가 1위로 75억 4천만불, 2위는 록히드社 69억 1천만불, 3위 마틴 마리에타社 47억 3천만불이였다.

마틴 마리에타社는 지난 5월 노드롭社에게 방위산업체인 그루먼社를 매입하기위한 공개입찰에서 패했으나 지난해 4월 제너럴 일렉트릭社의 방위전자업체를 30억5천만불, 올해 5월 제너럴 다이나믹社의 로켓 발사사업을 2억 8백만불에 매입했고, 록히드社는 작년 2월 제너럴 다이나믹社의 F-16전투기 사업을 15억불에 매입했다.

이번 합병은 냉전종식과 함께 이루어진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방산업체에 고용 감소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美 국방부 예산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20개 방산업체들은 '91~'93년에 17만7천명을 감원했고 올해도 우주산업분야에서만 4만9천여명의 감원이 있었다. *

▼ 걸프전에서 뛰어난 위력을 선보였던 록히드社의 F-117A 스텔스 전투기